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CATI & ARS

제84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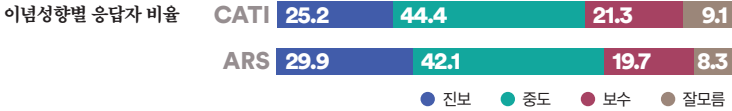
제99차 ARS조사

# 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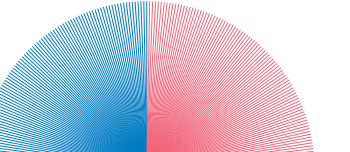
## 정례여론조사

### 보고서

## CATI & ARS



###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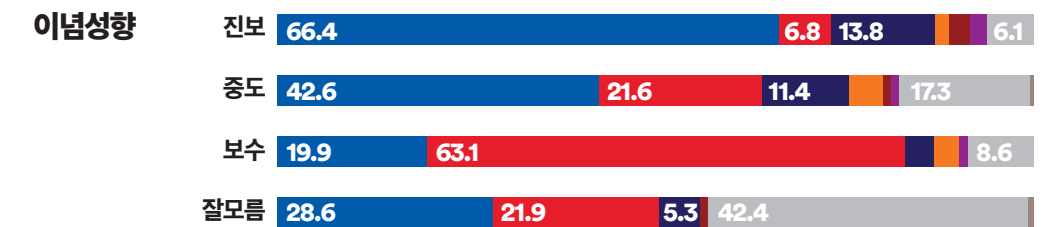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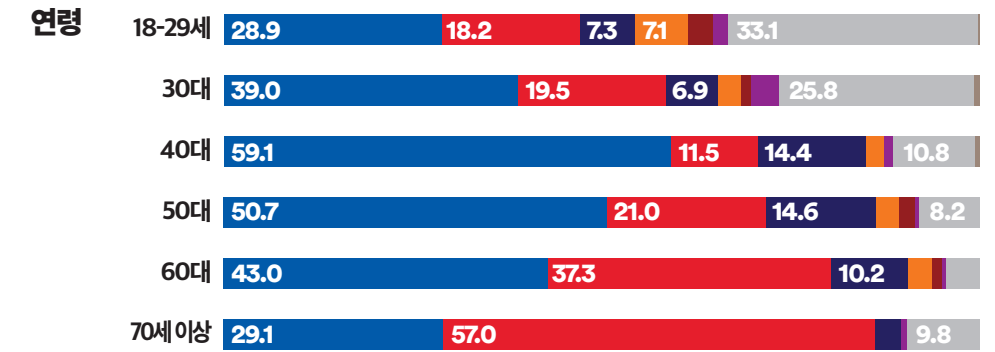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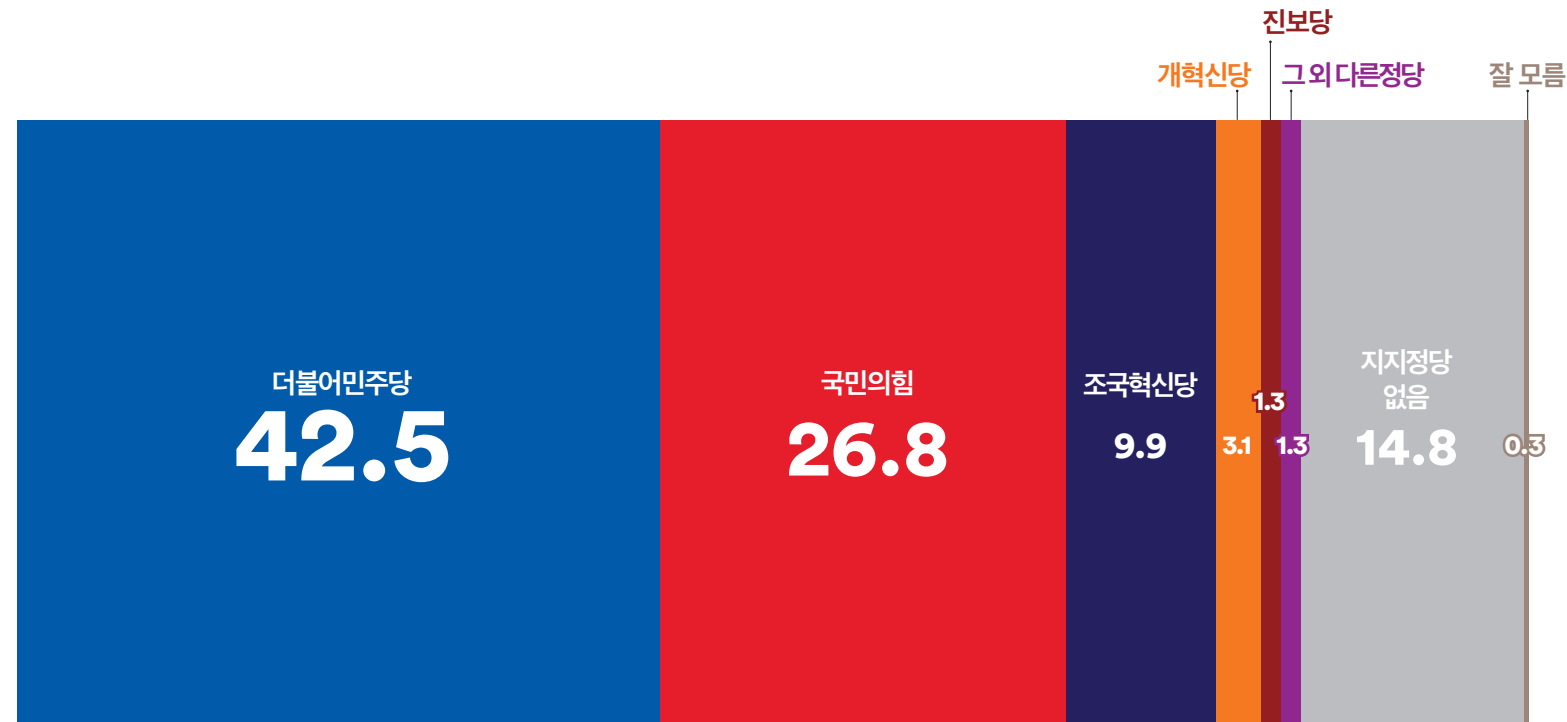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0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02	50.2	494	49.4	0.98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498	49.8	506	50.6	1.01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8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61	16.1	157	15.7	0.97						
응답률	11.3% [총 통화시도 8,834명]			30대	153	15.3	149	14.9	0.97						
조사기간	2024년 9월 27일 ~ 9월 28일(2일간)			40대	176	17.6	177	17.7	1.00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7	19.7	197	19.7	1.00						
				60대	169	16.9	173	17.3	1.02						
				70세 이상	144	14.4	147	14.7	1.02						
			지역	서울	188	18.8	187	18.7	0.99						
				인천·경기	322	32.2	320	32.0	0.99						
				대전·세종·충청	105	10.5	107	10.7	1.01						
				광주·전라	96	9.6	98	9.8	1.02						
				대구·경북	96	9.6	97	9.7	1.01						
				부산·울산·경남	151	15.1	149	14.9	0.98						
				강원·제주	42	4.2	42	4.2	1.00						

###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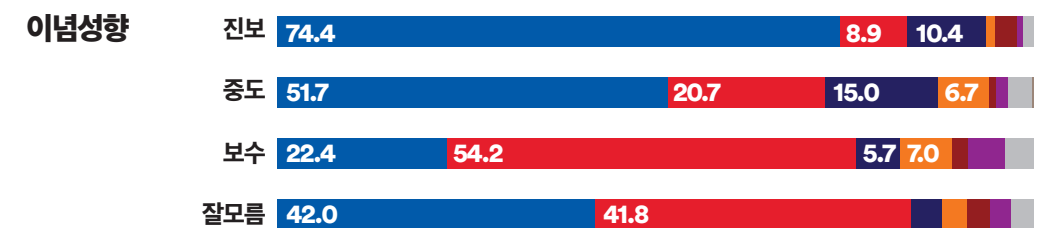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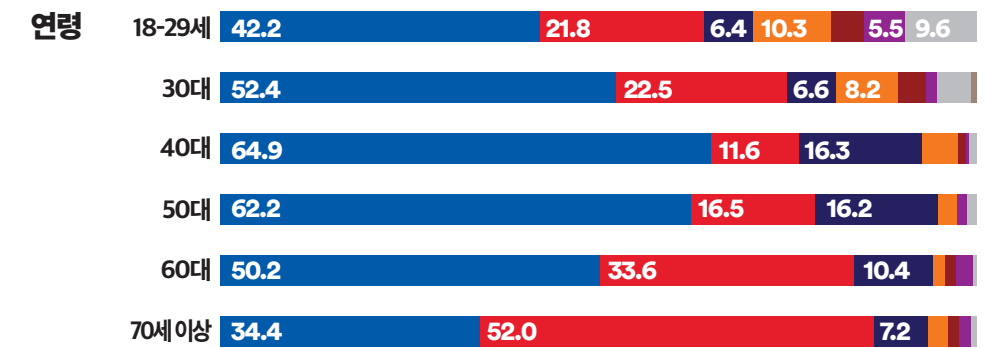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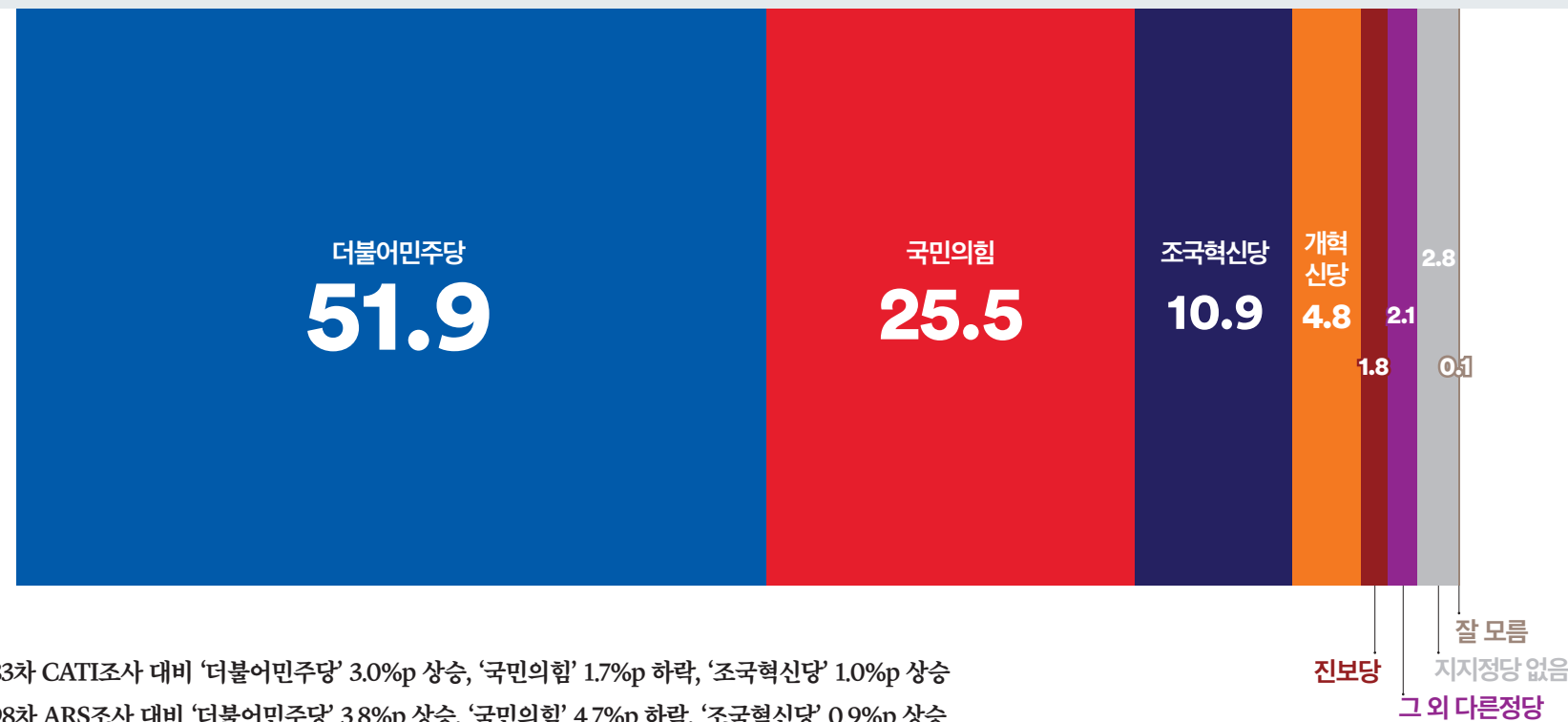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0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23	52.3	494	49.4	0.94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77	47.7	506	50.6	1.06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8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연령	18~29세	112	11.2	157	15.7	1.40				
응답률	2.1% [총 통화시도 48,470명]			30대	137	13.7	149	14.9	1.08				
조사기간	2024년 9월 27일 ~ 9월 28일(2일간)			40대	191	19.1	177	17.7	0.92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4	197	19.7	0.92				
				60대	188	18.8	173	17.3	0.92				
				70세 이상	158	15.8	147	14.7	0.93				
			지역	서울	185	18.5	187	18.7	1.01				
				인천·경기	318	31.8	320	32.0	1.00				
				대전·세종·충청	102	10.2	107	10.7	1.04				
				광주·전라	101	10.1	98	9.8	0.97				
				대구·경북	103	10.3	97	9.7	0.94				
				부산·울산·경남	150	15.0	149	14.9	0.99				
				강원·제주	41	4.1	42	4.2	1.02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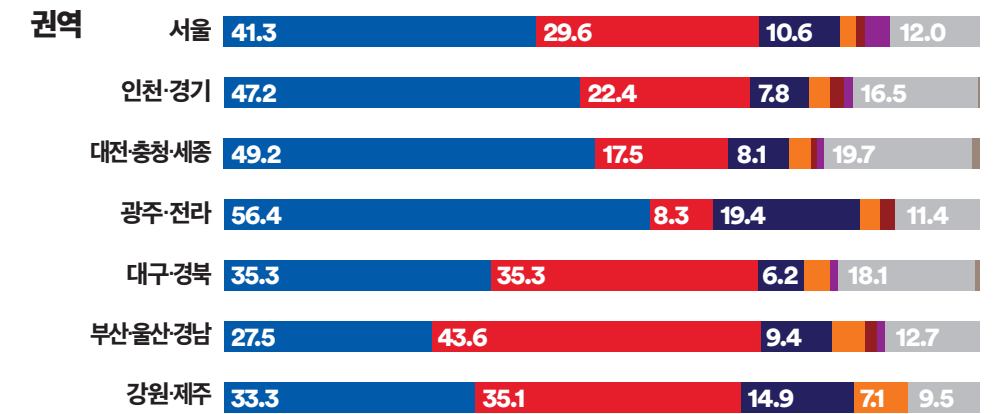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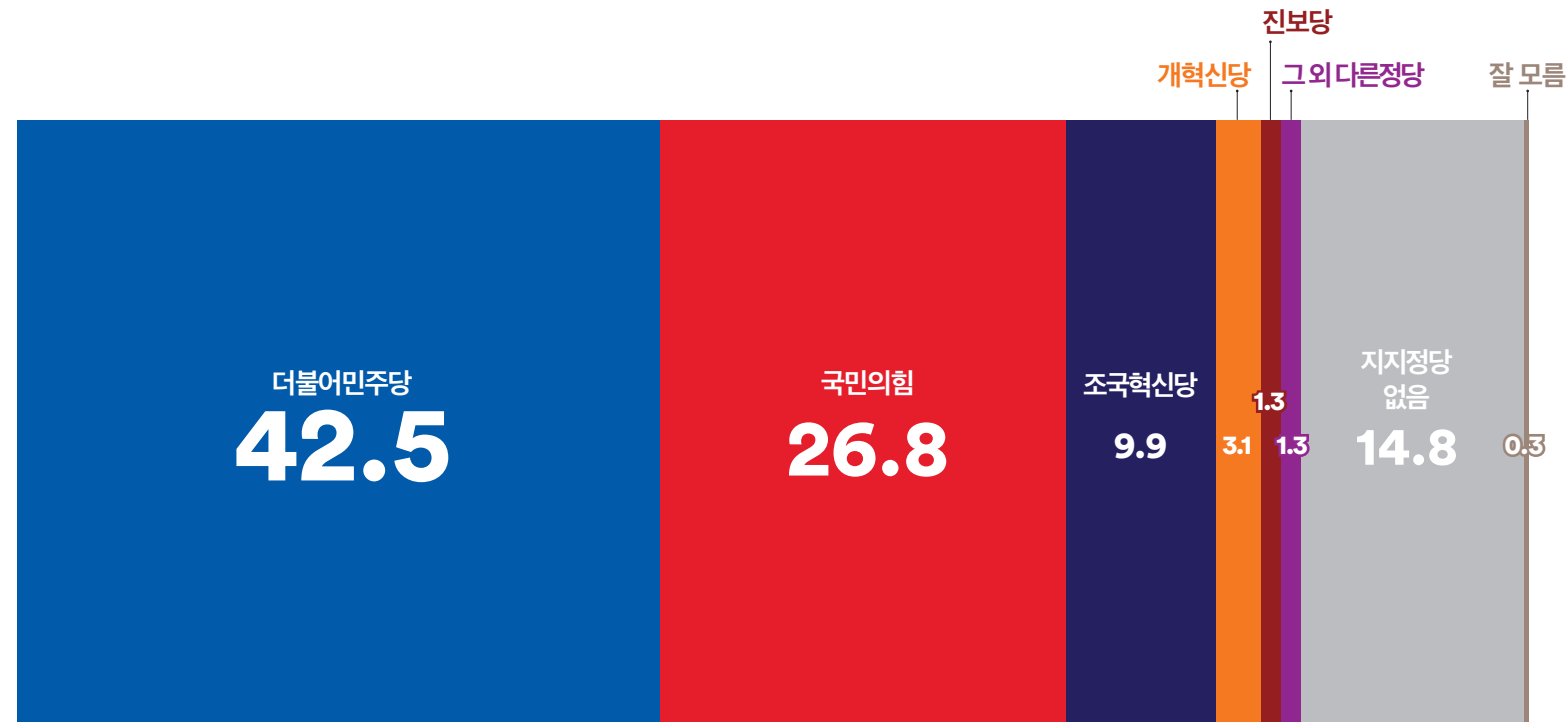


83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0%p 상승, '국민의힘' 1.7%p 하락, '조국혁신당' 1.0%p 상승  
 98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8%p 상승, '국민의힘' 4.7%p 하락, '조국혁신당' 0.9%p 상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15.7%p, ARS 26.4%p(지난 조사: CATI 11.0%p, ARS 17.9%)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25.6%p, ARS 37.3%p(지난 조사: CATI 19.9%p, ARS 27.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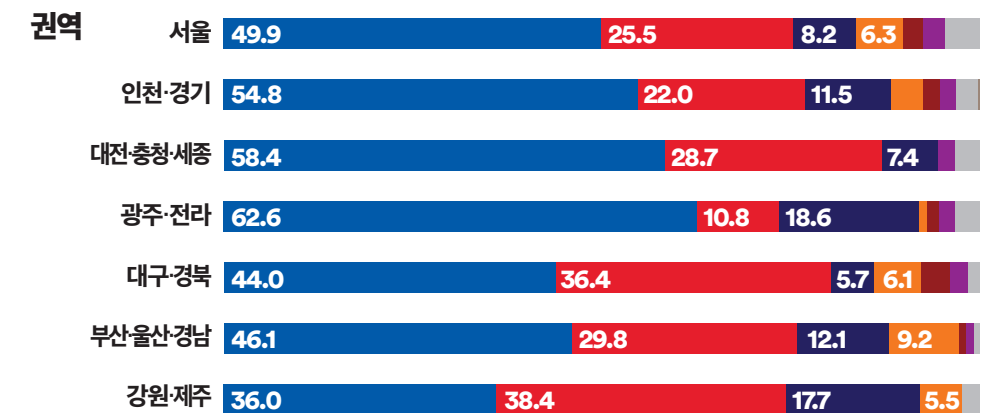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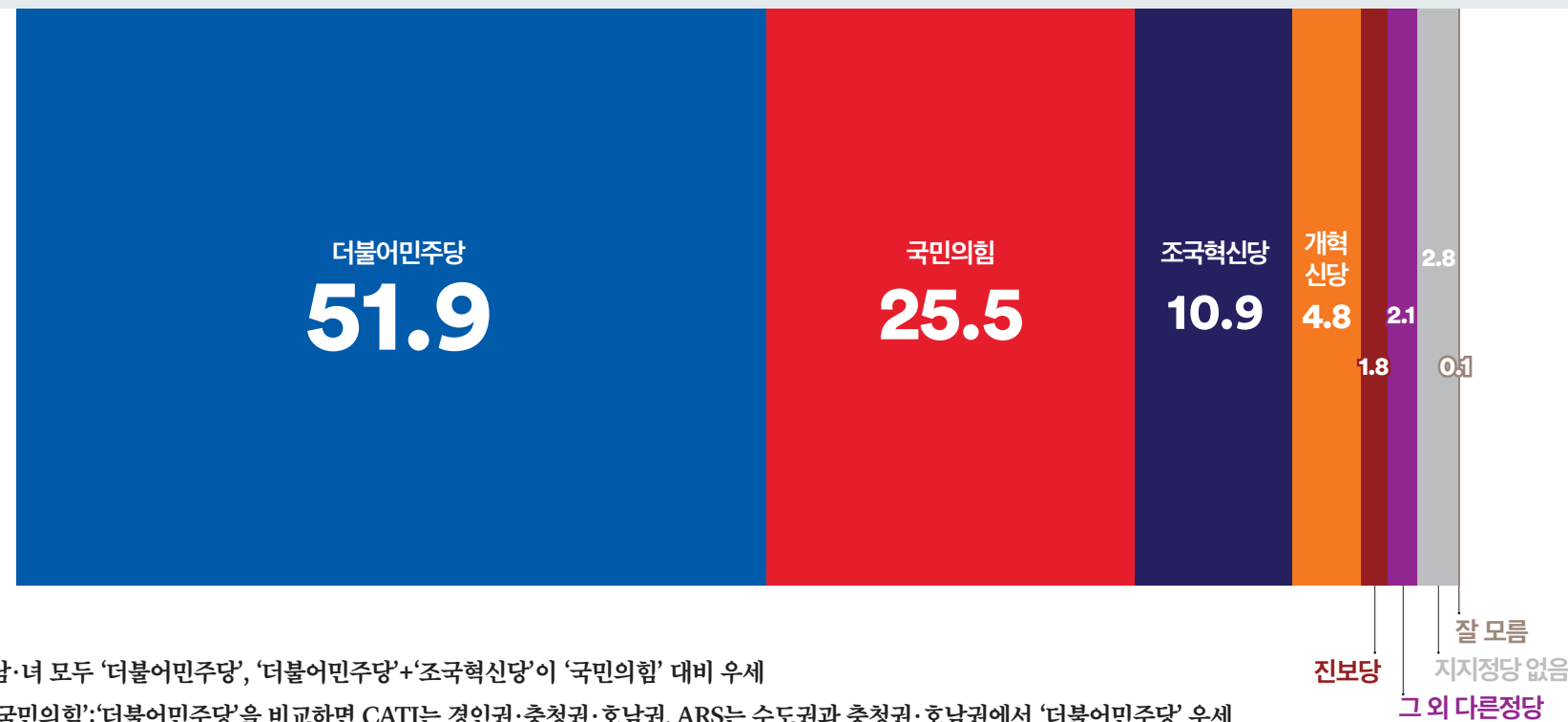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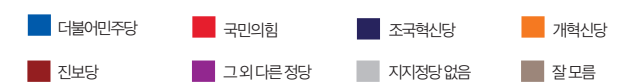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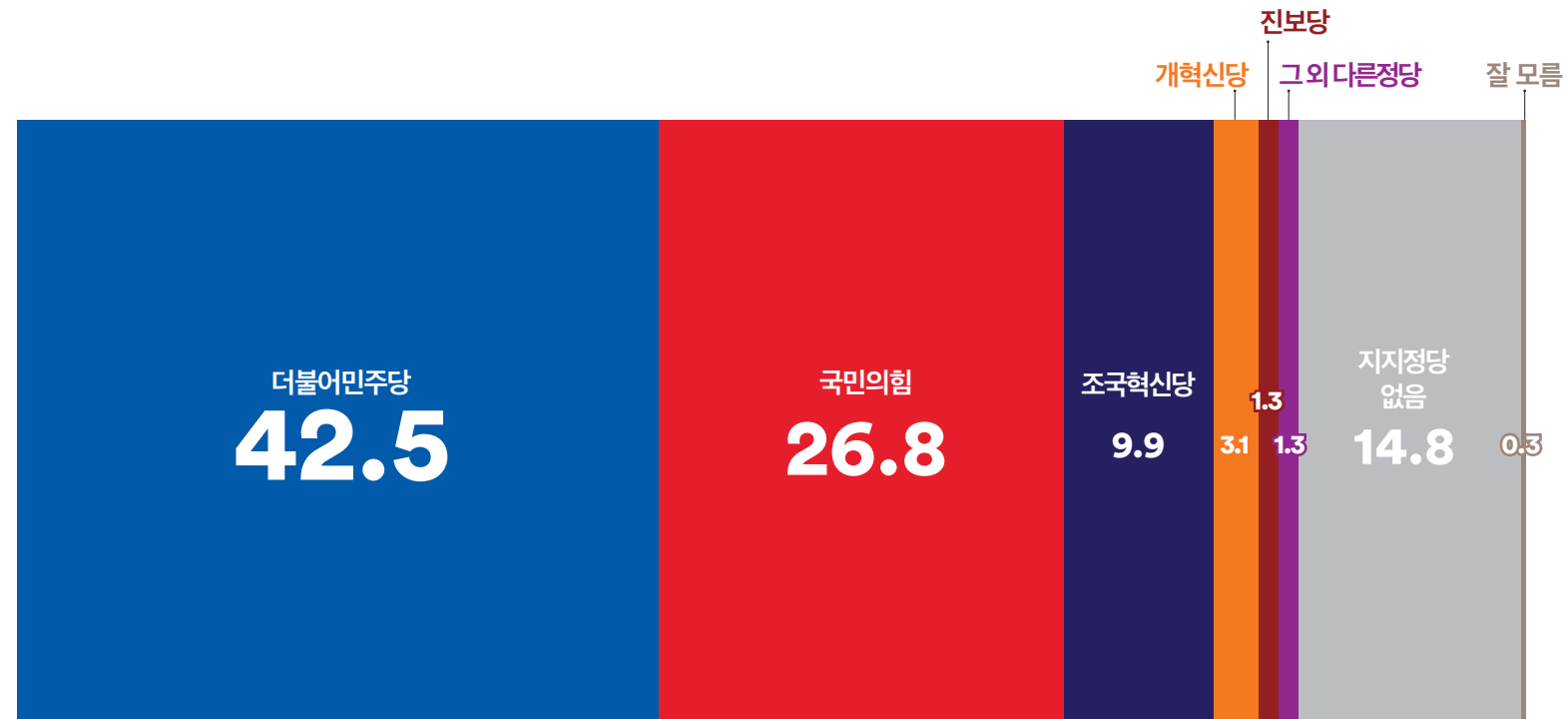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CATI는 경인권·충청권·호남권, ARS는 수도권과 충청권·호남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우세  
 두 조사 모두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만 '국민의힘' 우세, CATI조사의 30-50대, ARS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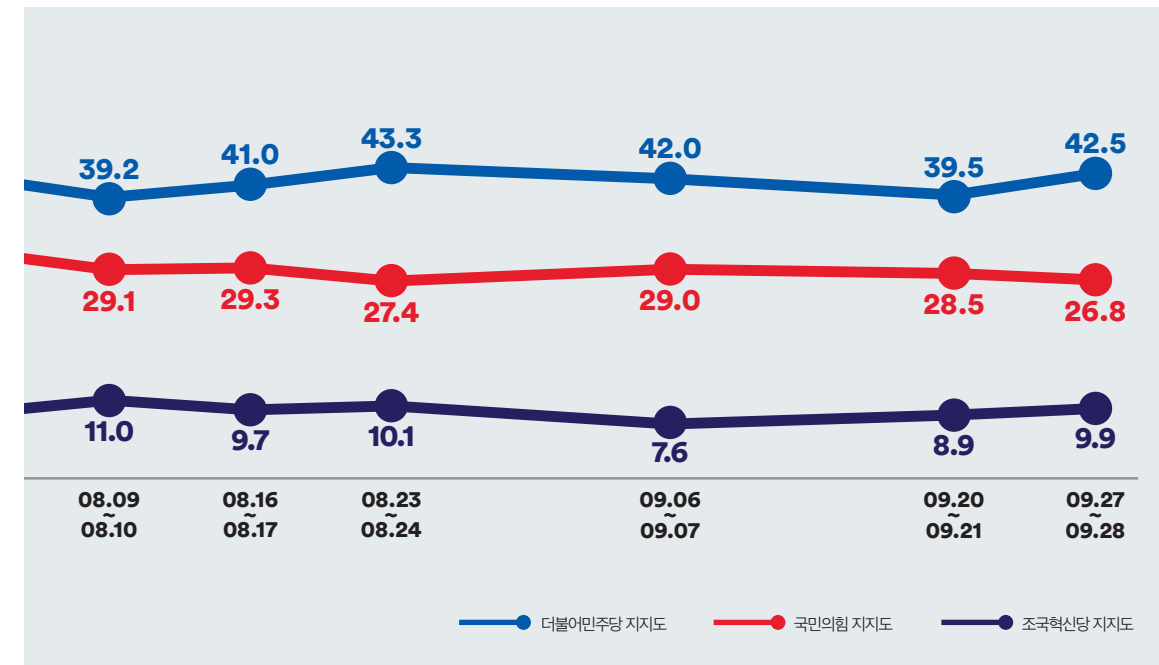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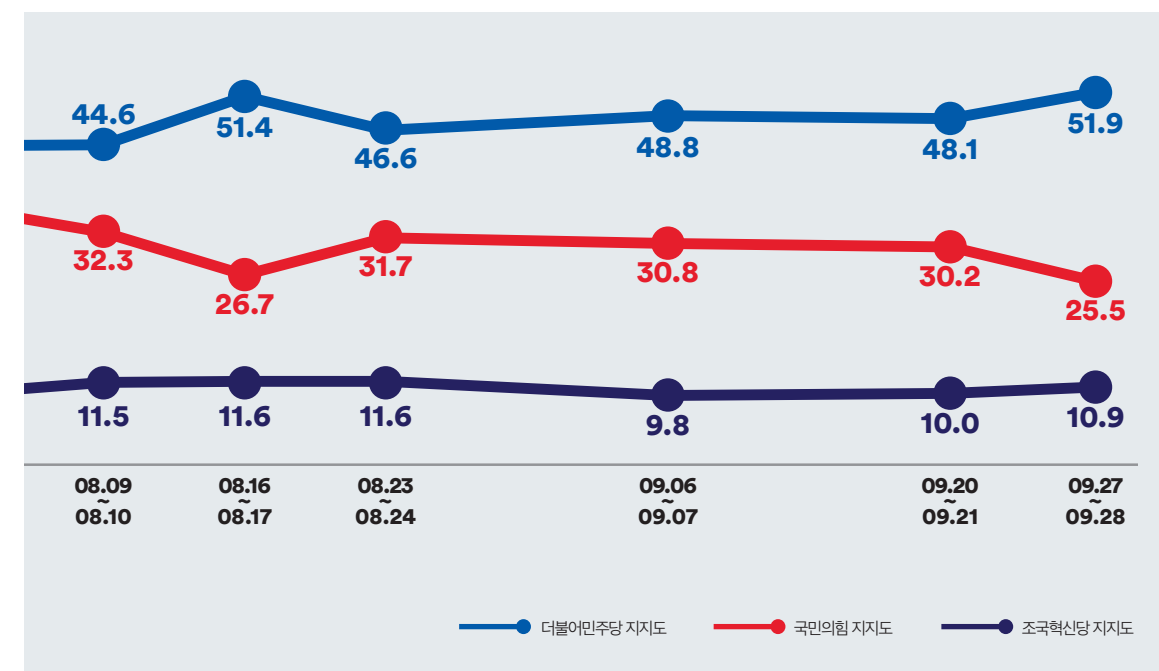
CATI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2.6%, '국민의힘' 21.6%, '조국혁신당' 11.4%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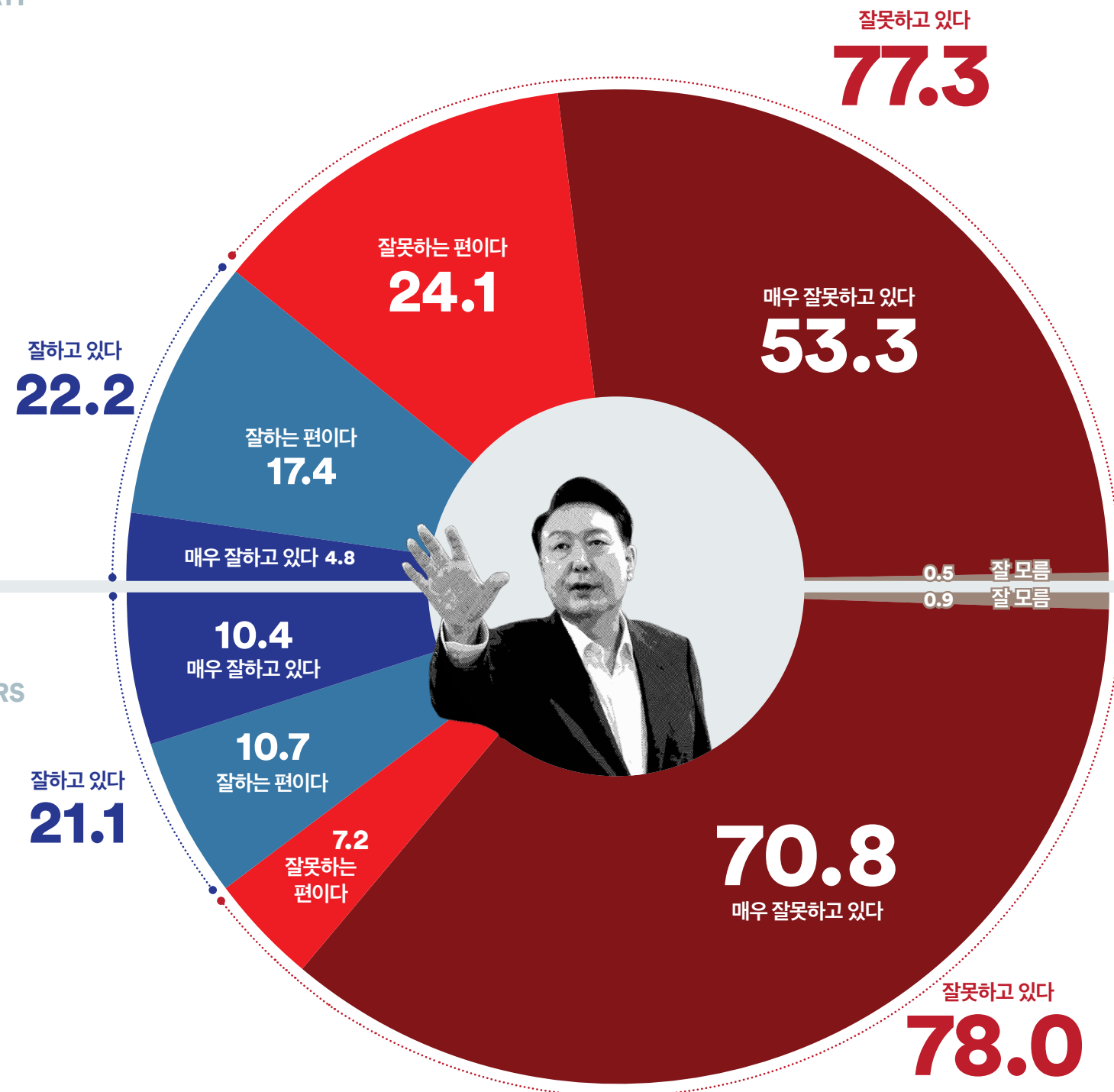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51.7%, '국민의힘' 20.7%, '조국혁신당' 15.0%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2.4%p(83차: 27.0%p), ARS 46.0%p(97차: 28.9%p)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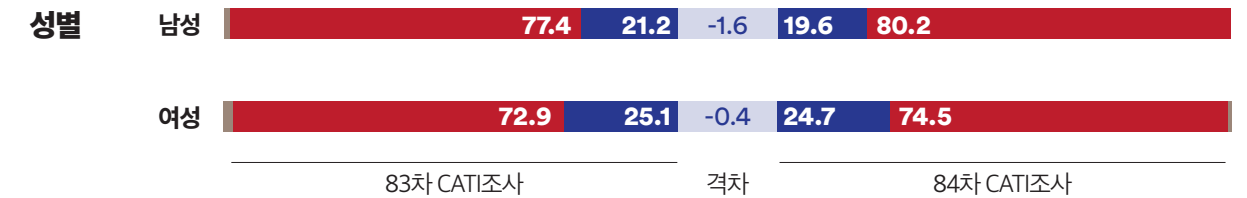


지난 83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0.9%p 하락, '부정' 평가 2.1%p 상승(격차 55.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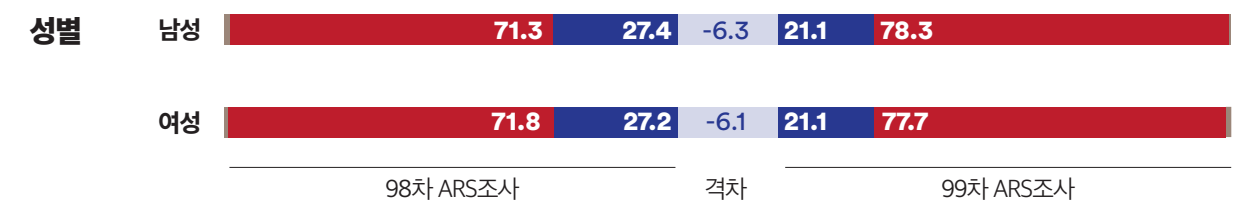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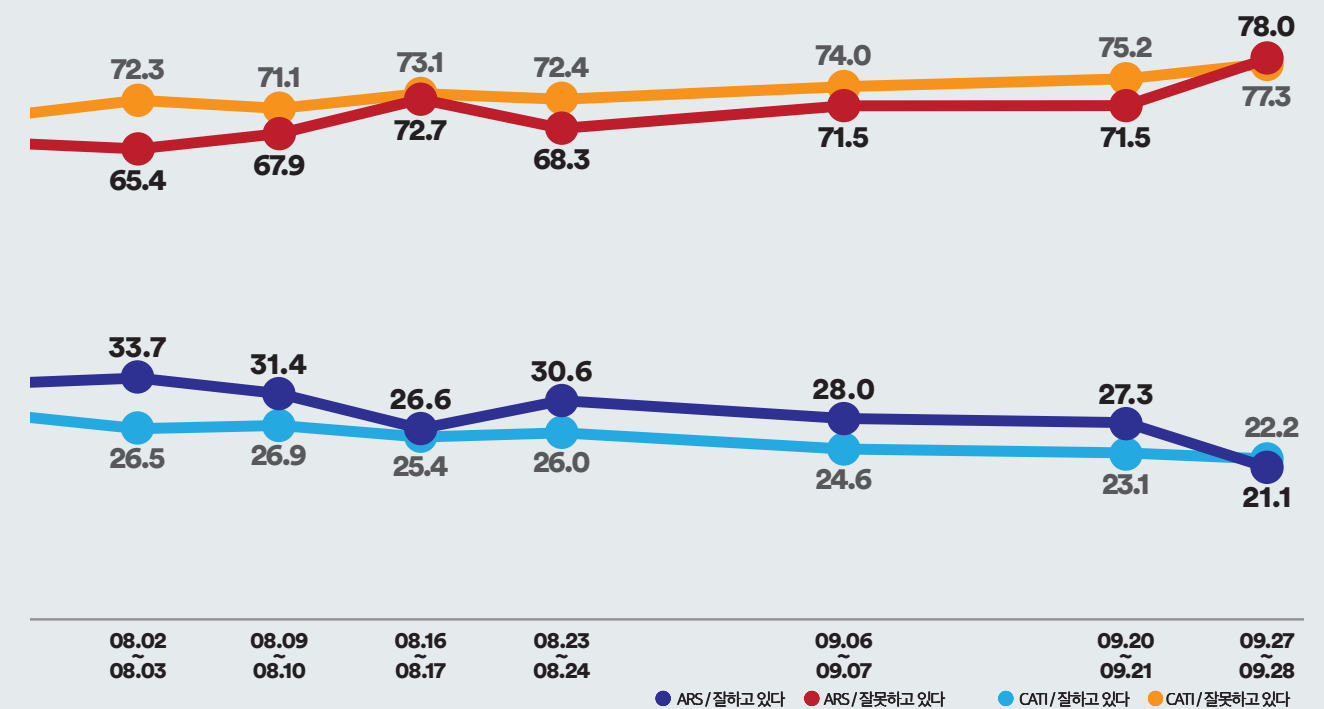
지난 98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6.2%p 하락, '부정' 평가 6.5%p 상승(격차 56.9%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70세 이상에서도 '부정' 평가 앞섬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63.7%p(지난 조사: 61.3%p), ARS 65.3%p(지난 조사: 44.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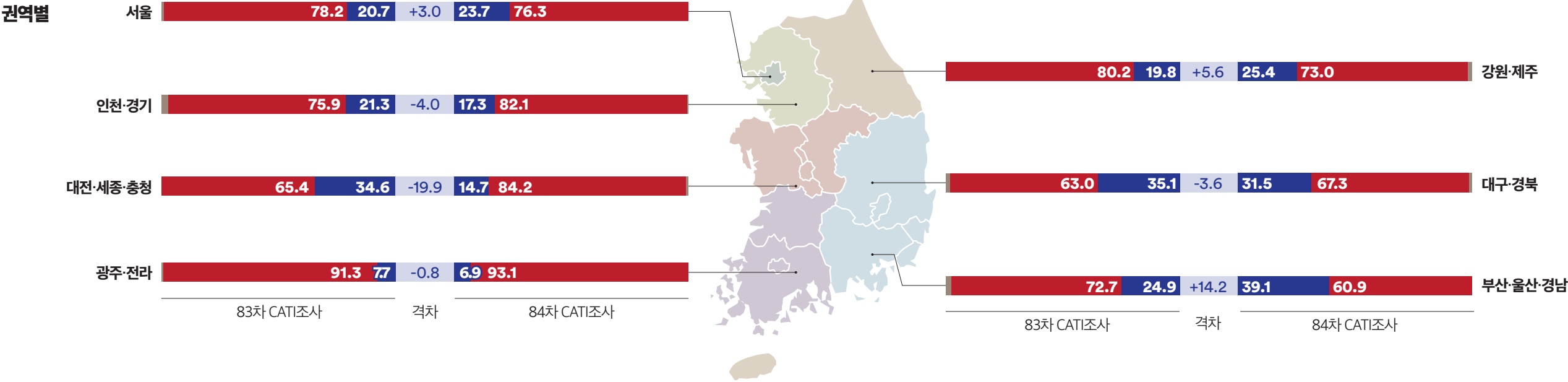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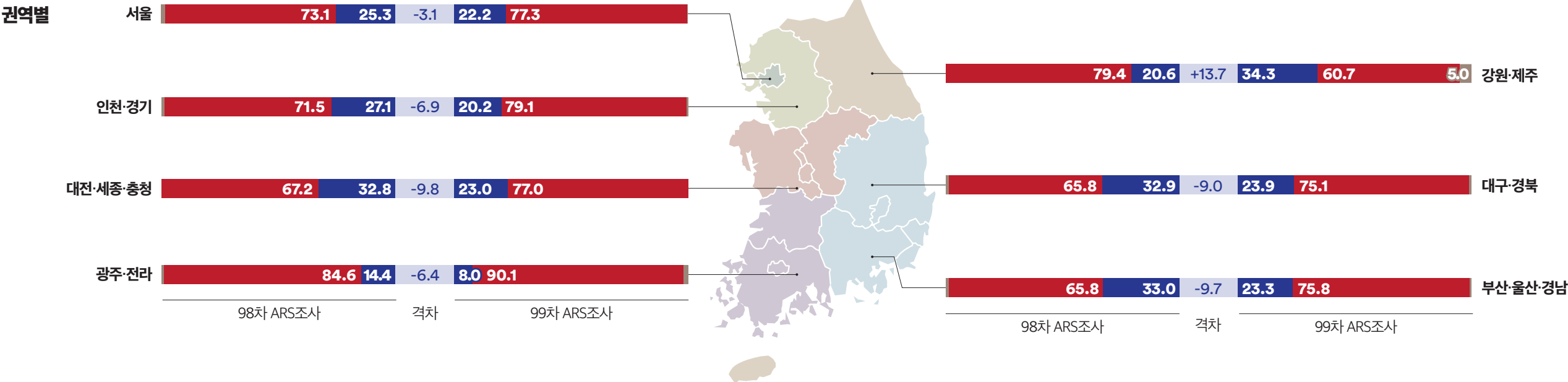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는 편이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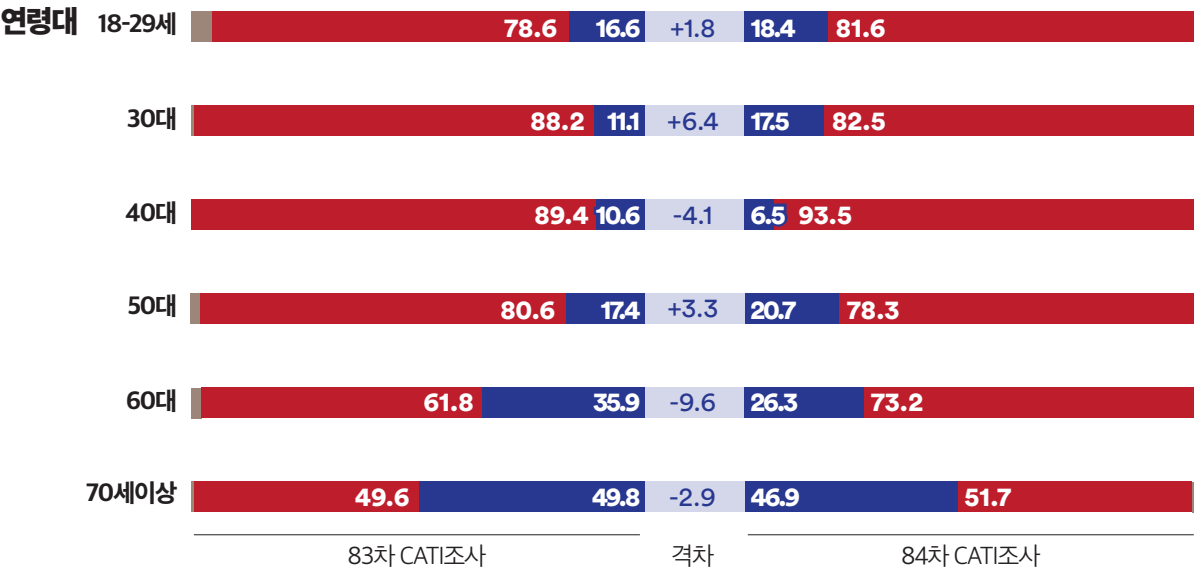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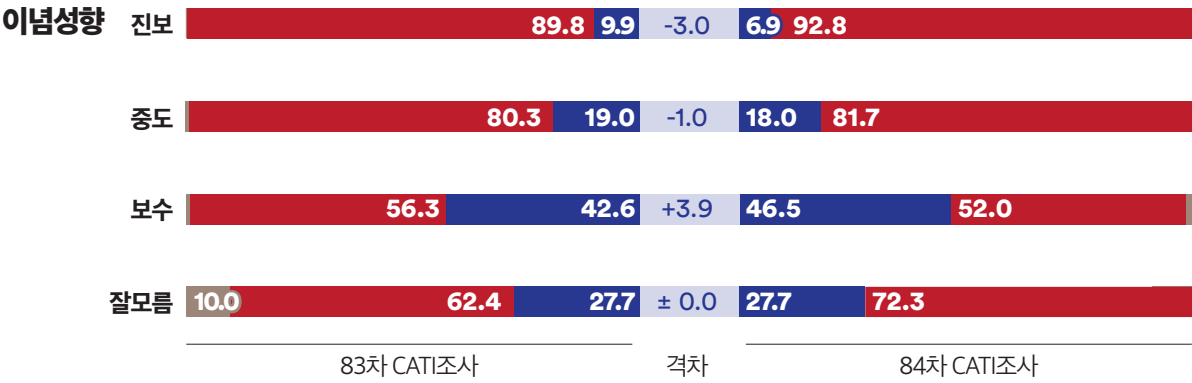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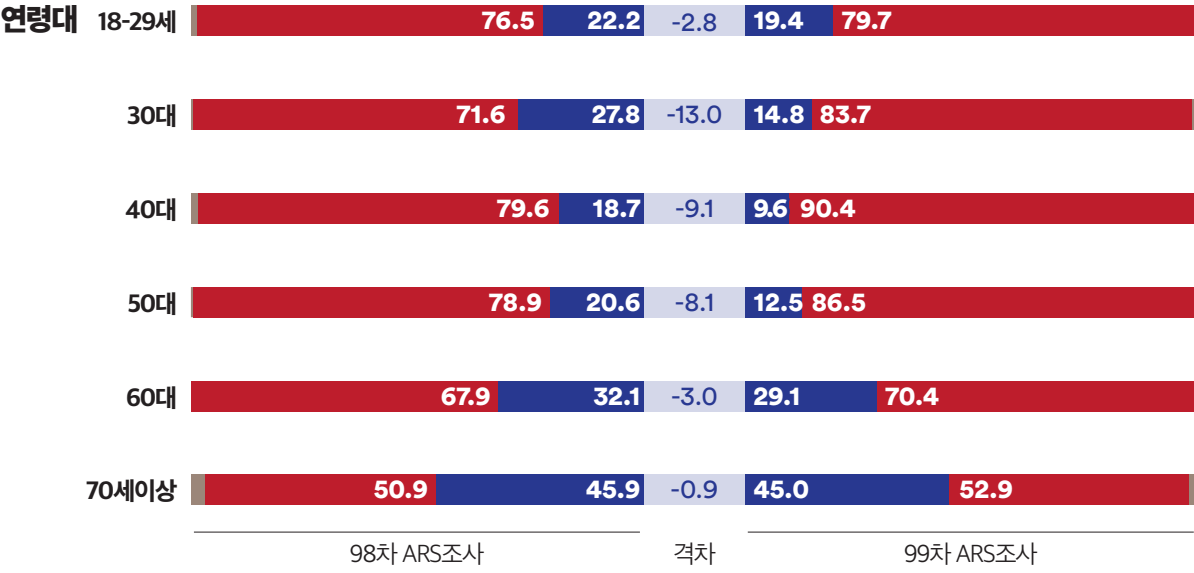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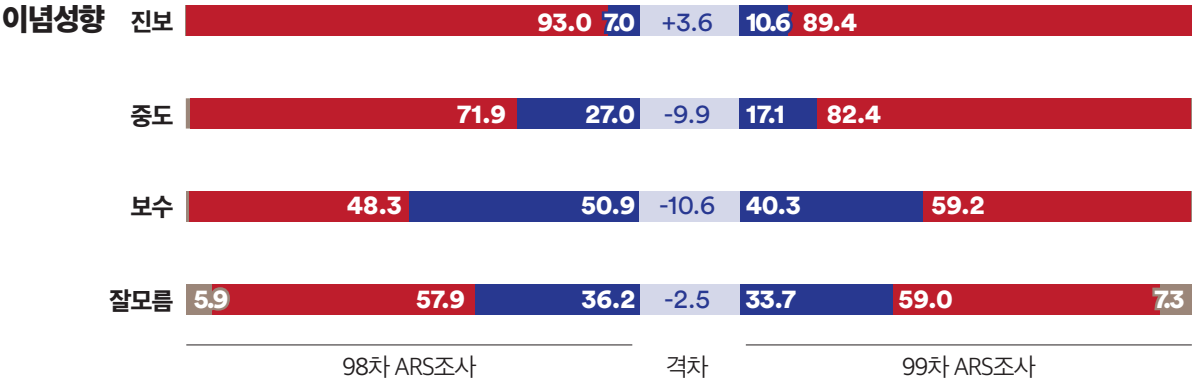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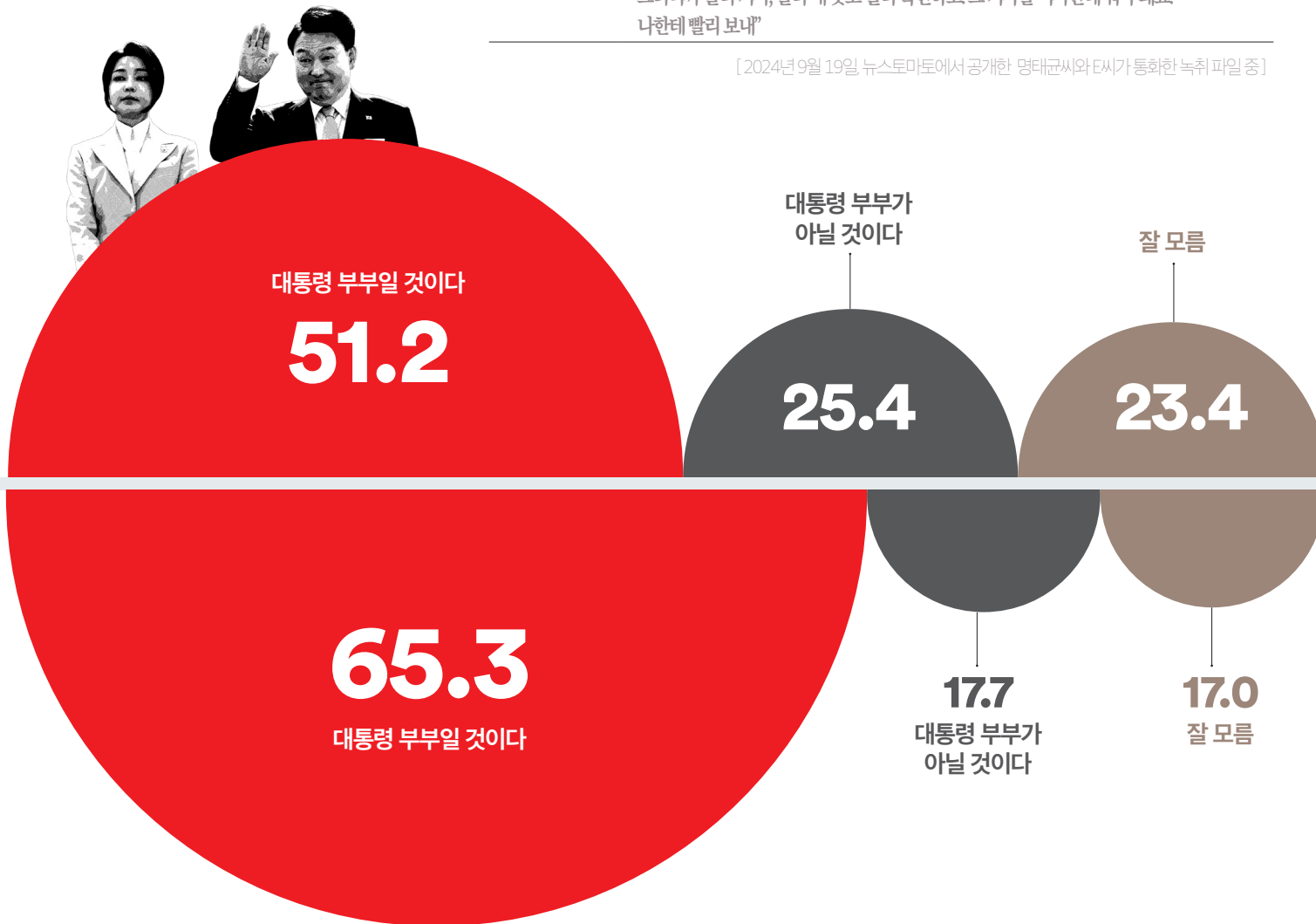
Q.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명태균 씨의 배후가 대통령 부부일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시기 - 2022년 5월 9일 통화	
오전 10시19분	“Y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K가, 공관위 압박을 넣어 가지고” “내가가만히 있을 놈이라? 끝났어. XXX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니” “소문내면 안 돼요. 후보들 난리 날 겁니다. OOO 입 조심하라 하고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후 4시39분	“김영선 그 현수막, 이제 본선 후보잖아.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되거든 문구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시기 - 2024년 2월 18일 통화	
오후 9시38분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 갖고 빨리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빨리 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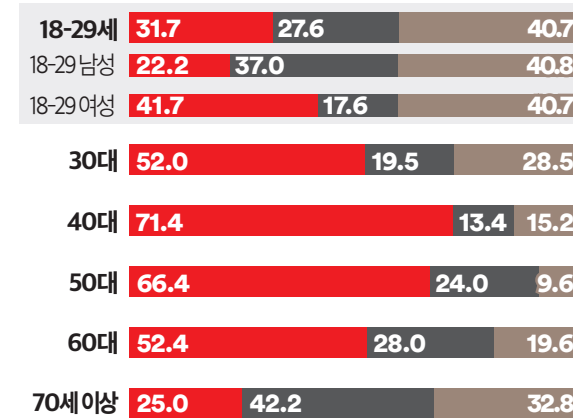
[2024년 9월 19일 뉴스토마토에서 공개한 명태균씨와 E씨가 통화한 녹취 파일 중]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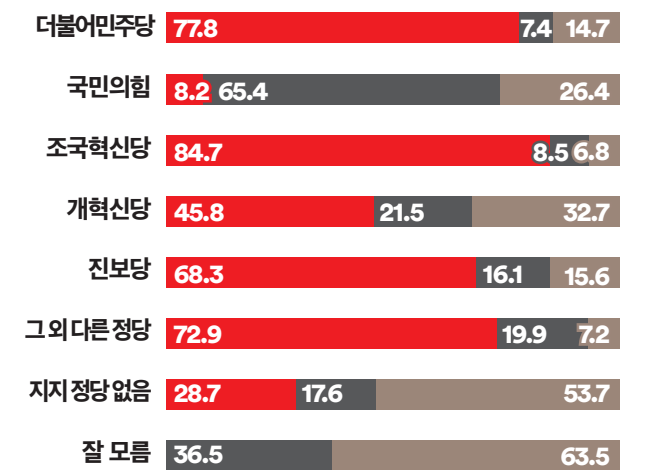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명태균 씨의 배후에 대통령 내외가 있을 것이라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25.8%p, ARS 47.6%p)  
‘대통령 부부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CATI조사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과 ARS조사의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세  
ARS조사의 강원·제주와 CATI조사의 TK, 강원·제주에서도 ‘대통령 부부일 것’이란 응답이 앞섬  
CATI조사의 30~60대 응답층과 ARS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도 ‘대통령 부부일 것’이라는 응답 우세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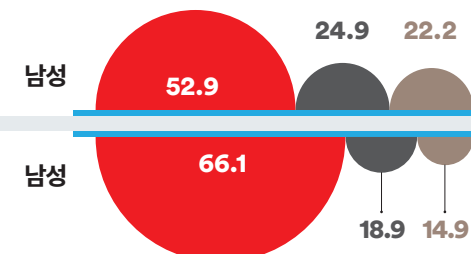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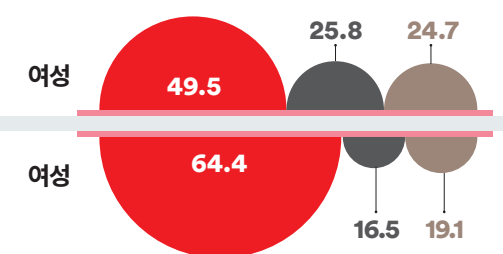
남성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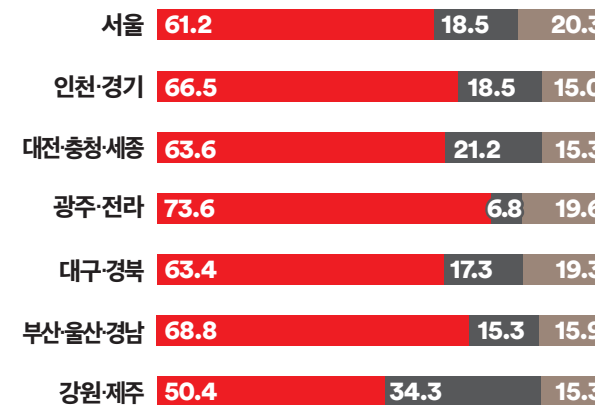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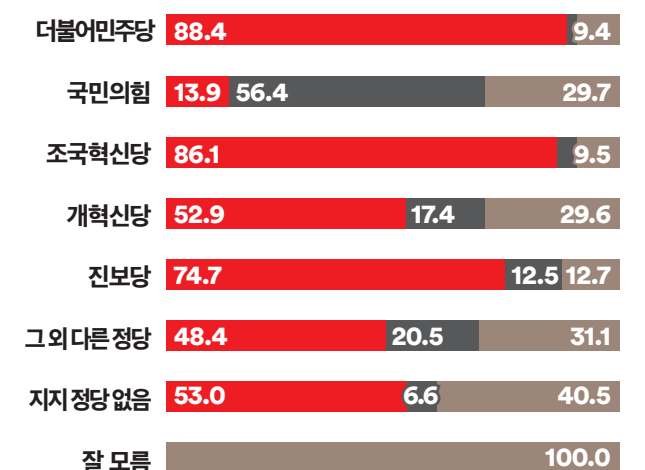
여성



## 권역



## 정당지지도



대통령 부부일 것 대통령 부부가 아닐 것 잘 모름

Q.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2024년 총선 용인갑 공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이후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야, 이게 뭐 전부 다 정신 아주 그냥. 그 여사한테 그냥, 어, 그저 이원모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려 해주려고 저 지랄을 떨고 있다”  
“이원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거를 지금 그 저기 용인으로 가계끔 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9월 24일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2024년 2월 20일 통화 녹취]

“2024년 상반기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할 당시 의도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전달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주장하는 공천 관련 사실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방송 이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반박 내용]

ARS

김건희씨  
공천 관여 녹취내용이  
사실일 것이다

61.7

김 전 행정관이  
부인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19.2

잘 모름

19.1

김 전 행정관이  
부인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17.2

잘 모름

16.6

66.2

김건희씨  
공천 관여 녹취내용이  
사실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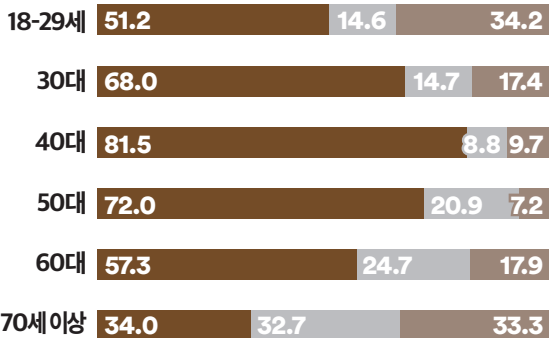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김건희 씨의 총선 공천 관여가 사실일 것이다'라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42.5%p, ARS 49.0%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성별 및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녹취 내용이 사실일 것이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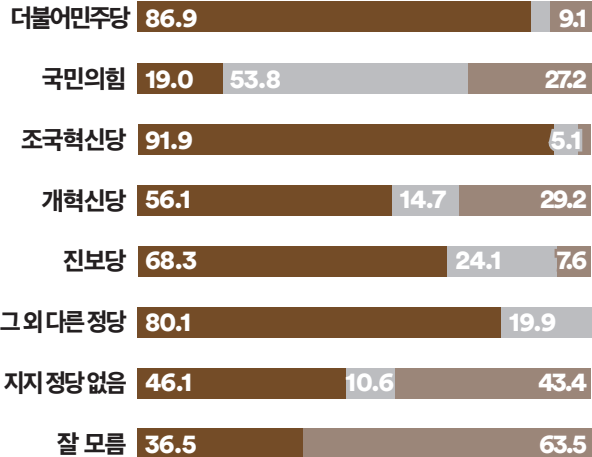
CATI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만 두 응답이 팽팽하게 갈림

CATI조사의 보수층에서는 두 응답이 초박빙, ARS조사의 보수층에서는 '사실일 것'이란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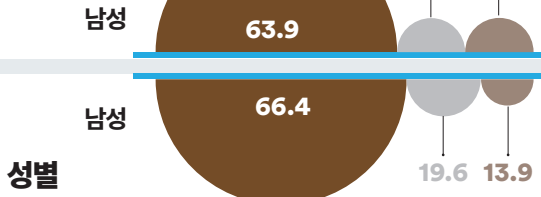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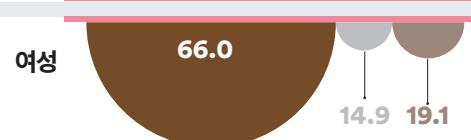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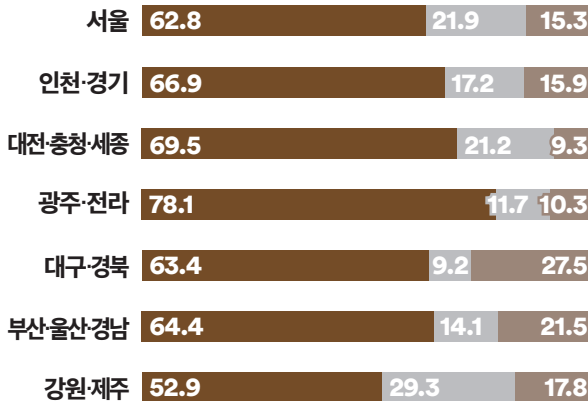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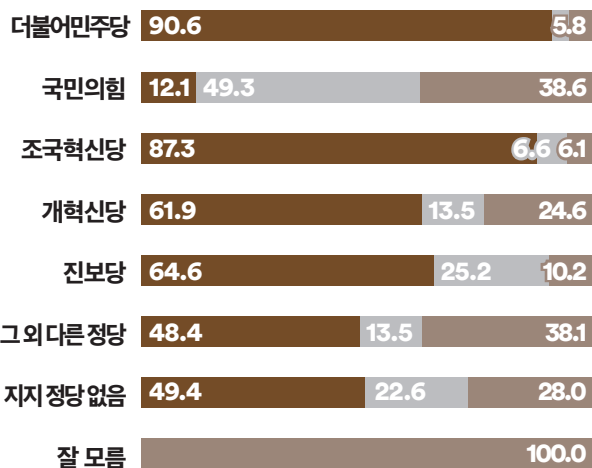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김건희씨 공천관여  
녹취내용이 사실일 것

김 전 행정관이  
부인한 것이 사실일 것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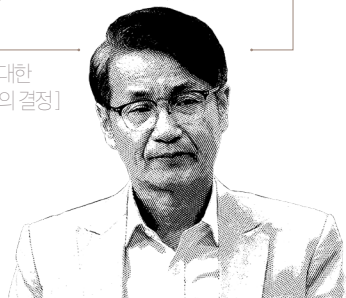
Q.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김건희 씨에게는 불기소를 권고했던 수사심의위원회와는 정반대 결과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검찰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기소 권고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기소 권고

[9월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권고

[9월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관련법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74.1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20.0

잘 모름

5.9

ARS

72.9

관련법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20.1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7.0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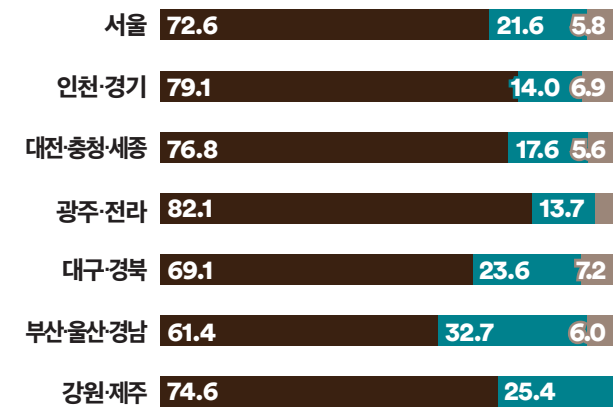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명품백 청탁 사건에 관해 ‘김건희 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54.1%p, ARS 52.8%p)

모든 권역과 성별 및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기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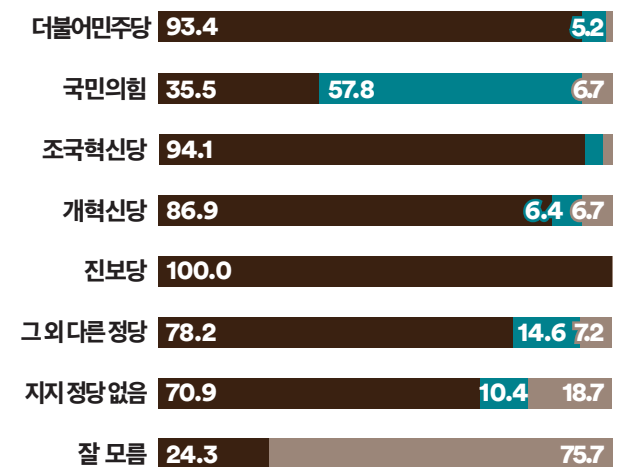
CATI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하고, ARS조사의 70대 이상은 ‘기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섬

ARS 보수층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우세 (기소해야 한다 56.4%,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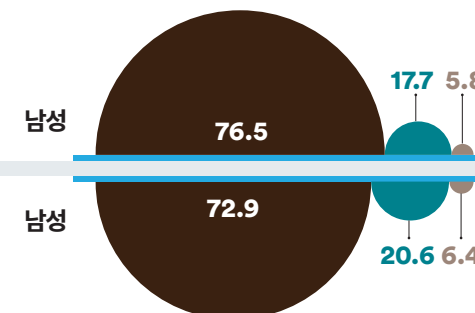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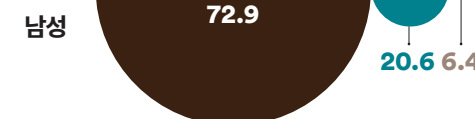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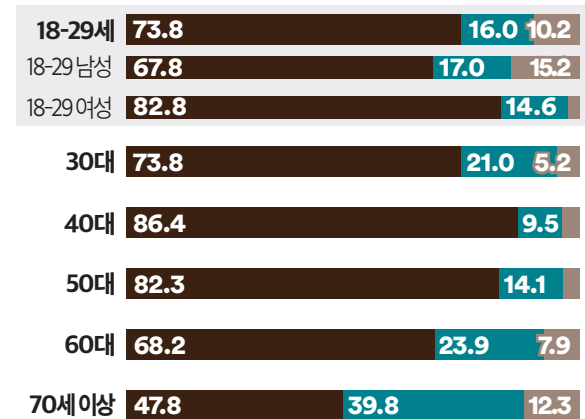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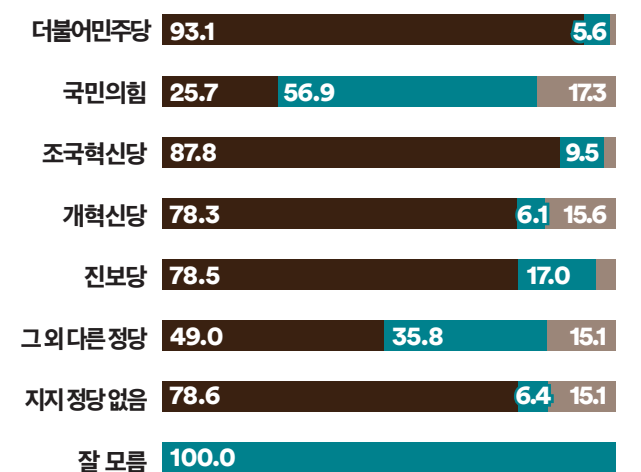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 기소해야 한다 ■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 잘 모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황

Q.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씨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0년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나, 주가조작 공범 김 모 씨의 편지에 김건희 씨가 등장하는 등 새로운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건희 씨 검찰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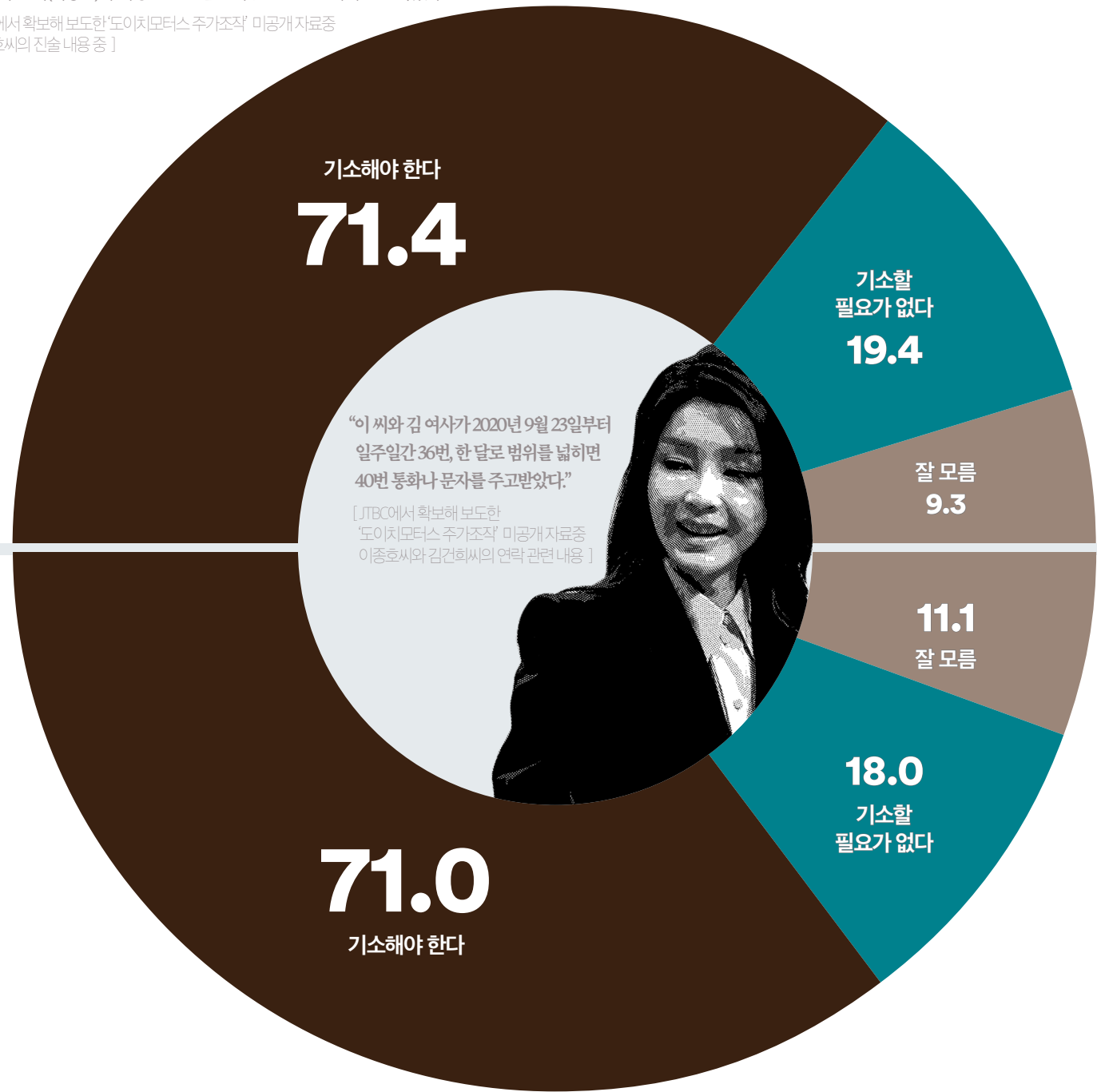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JTBC에서 확보해 보도한 '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 김씨의편지 내용 중]

“김 여사는 내(이종호)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여러 번 연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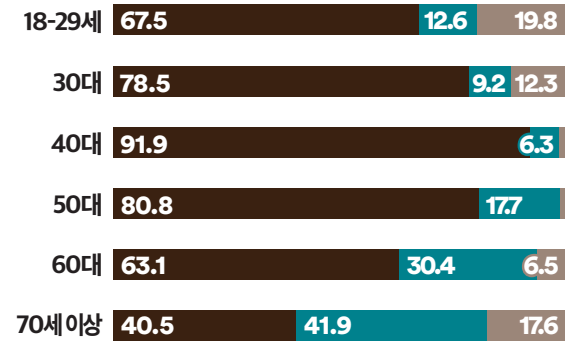
[JTBC에서 확보해 보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미공개 자료중  
이종호씨의 진술 내용 중]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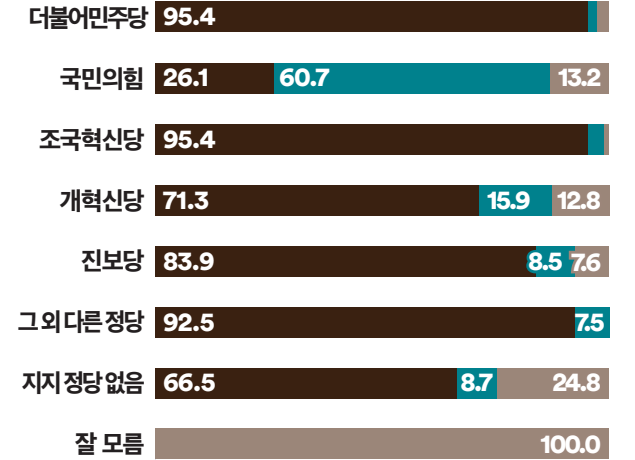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해 ‘김건희 씨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응답간 격차: CATI 52.0%p, ARS 53.0%p)  
모든 권역과 성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기소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CATI 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만 팽팽하게 갈림)  
보수층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CATI조사에서는 앞서고 ARS조사에서는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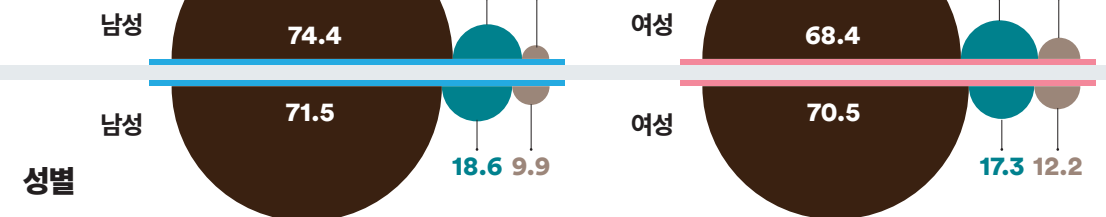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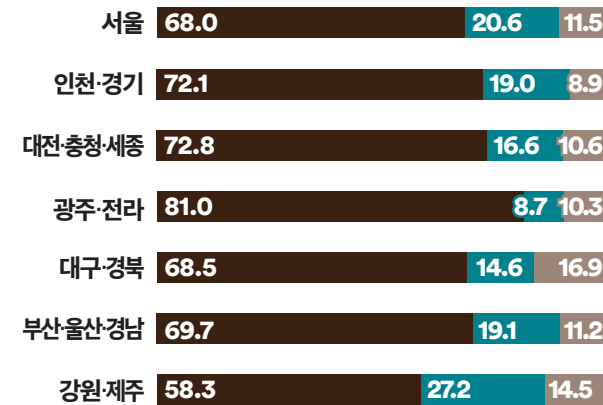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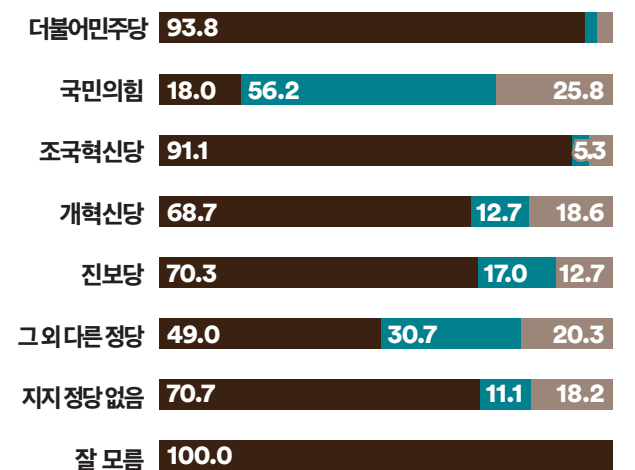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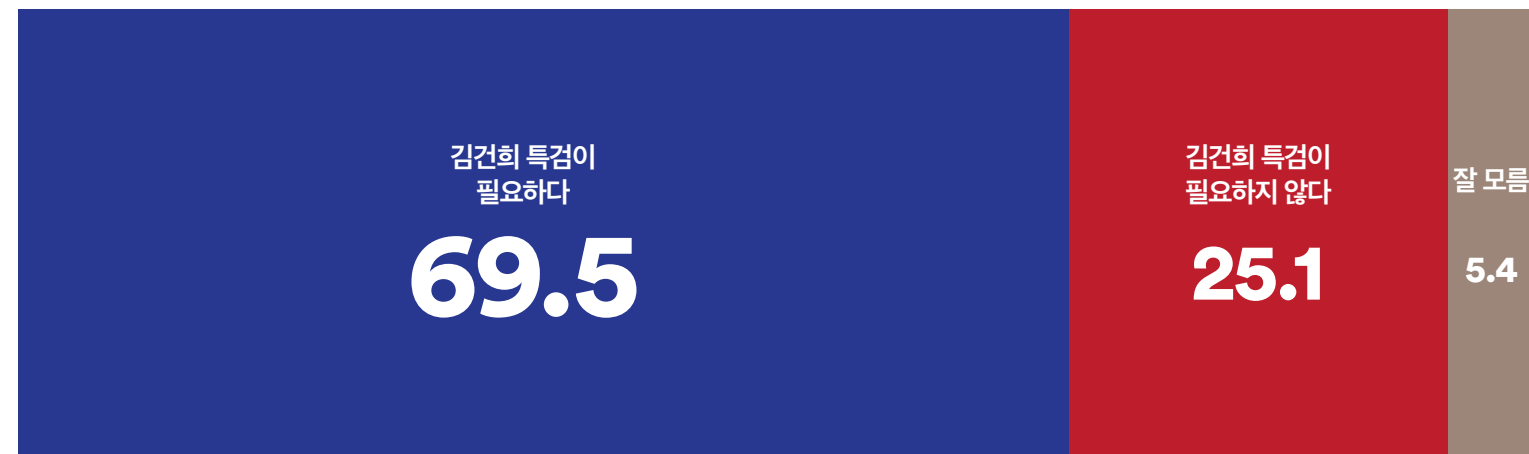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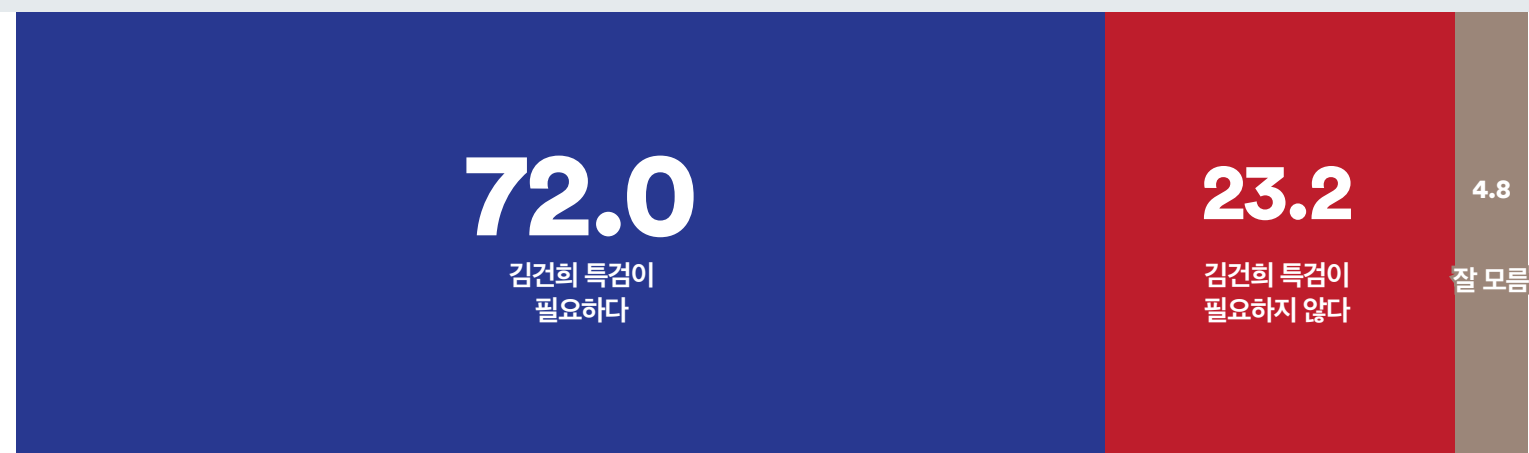
기소해야 한다 기소할 필요가 없다 잘 모름

Q. 소위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특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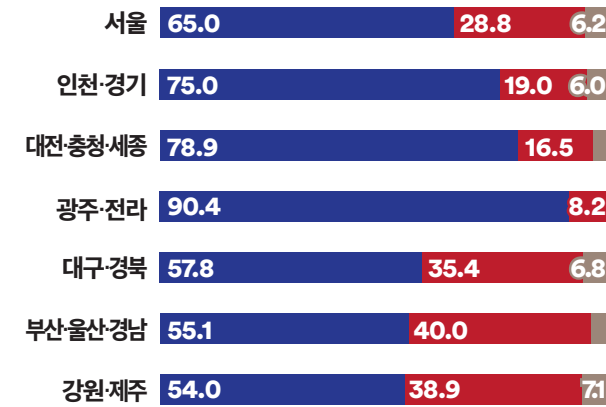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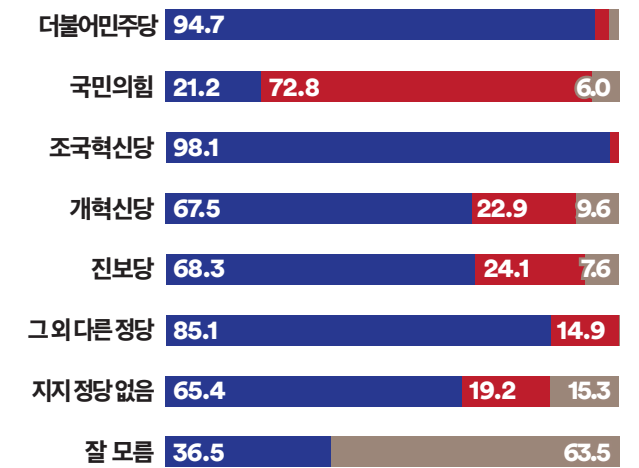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이 필요한가에 대해 10명 중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44.4%p, ARS 48.8%p)  
대부분의 권역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CATI조사의 PK와 강원·제주, ARS조사의 강원·제주에서는 앞섰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응답층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우세  
특히 40대의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CATI에서는 90.5%, ARS에서는 87.2%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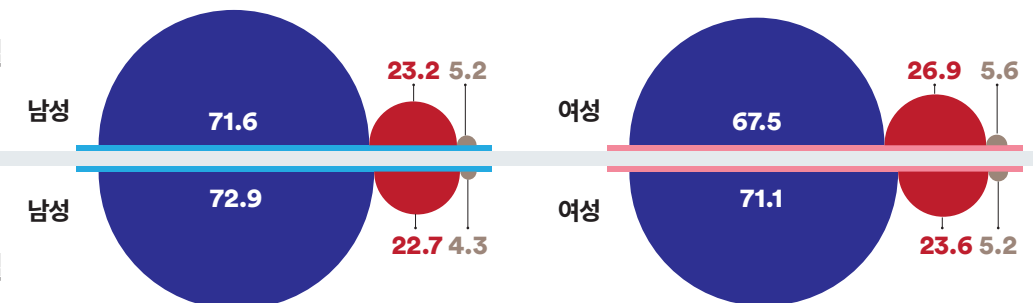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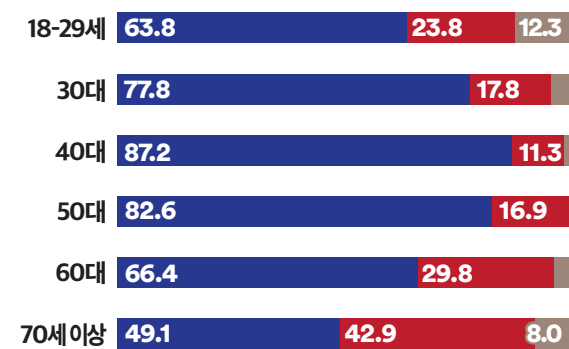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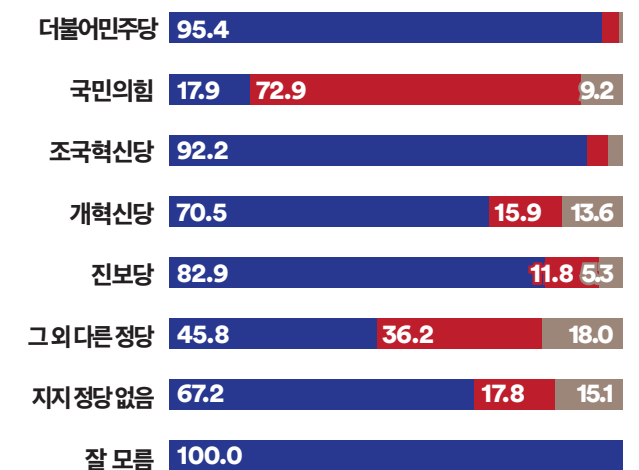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 특검이 필요하다 ■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10\_01